교육실습 소감문

수학교육과

4월 6일 처음으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효문중학교로 교육실습을 나갔다. 아침 8시 30분 내가 담당하게 된 1-6반으로 조회 참관 갔다. 그 곳에서 처음으로 우리 반 아이들과 인사하고 담임선생님과도 인사하였다. 담임선생님은 올해 첫 발령받으신 분이었는데 27살이셨다. 담임선생님께서는 쉬는 시간에 언제든지 반으로 오셔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의 상담일지와 사진을 주셔 아이들과 친해지는데 참고하라고 말씀하셨다. 교육실습이 실감나면서 그 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 사진을 보며 이름을 외었다.

효문중학교는 조금 특이한 학교였다. 지역이 쌍문동이여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 많았고 우리 반 28명중 5명의 학생이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있고 한명은 더 안좋은 상황에서 자라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줘야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비록 교생으로 왔지만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었다. 교육실습 처음 3일 동안 교장, 교감선생님 및 각 부장선생님의 연수가 있었다. 모두 좋은 말씀이었지만 특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와 교감선생님이 말씀하신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배워가자.'라는 메시지가 가장 기억난다.

효문중학교에서의 교육실습 기간중 4주차 때 중간고사가 있었다. 따라서 수업을 2,3주차 때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교과담당선생님은 1주차 때부터 수업참관을 시작해야하고 1주차 끝나기 전에 학습지도안 3개정도는 나와야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때부터 정신없이 참관하고 학습지도안 짜기 시작했다. 교과 담당선생님은 2학년 2반부터 6반까지 5개의 반 7개 차시의 수업을 주셨다. 총 35시간을 주셨다. 또 2학년 1반 수학을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1반도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1반 수업 4시간도 들어가게 되었다. 2,3주차 때 총 39시간을 들어가게 되었다. 많은 시간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에 좋기도 하였지만 많은 부담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수업참관을 시작하고 학습지도안을 짜면서 많은 수학적 수업 모델링을 사용하려 계획했었지만 학교에서 사용하려 하니 막상 수업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최대한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끄는 수업 지도안을 짜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1학년 6반에 줘야하는 관심과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쉬웠다. 쉬는 시간에 찾아가지 못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2주차가 시작되었고 화요일부터 수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내가 맡은 범위는 방정식과 부등식의 연립방정식 파트였다. 많은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한 경험은 별로 없는 터이고 뒤에 교과담당선생님께서 계셔서 많이 떨렸던 것 같다. 원하는 만큼의 수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 상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 두 반씩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는 담당선생님도 나한테 수업을 모두 맡기도 들어오지 않으셨다. 따라서 전 보다 떨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다. 아이들과도 친해졌다. 학생들은 교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좋아해주었다. 나도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재밌게 수업하려 했다. 하지만 재밌고 편하게만 해주려던 내 수업에서 학생들은 떠들기 시작했다. 상당히 많이 떠들기 시작했다. 조용히 하라는 말도 처음에는 재밌게 했지만 수업마다 조용히 하라는 말이 많아지고 힘이 들기 시작했다. 각 반에는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 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와서 해준 말이 있다. 내가 너무 착해서 아이들이 떠든다고, 자신들의 수학선생님은 조용히 시키려고 처음 수업에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엄격하고 무섭게 대했다고 했다. 처음 2주간 학생들은 수학선생님이 잘못 걸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좋은 수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생님의 노력이었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을 배운 것 같았다. 처음 교육실습 오기 전 나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과 같이 내가 재밌고 편하게 대해주면 학생들도 집중하고 들을 것 같았지만 학교현장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더 심오하고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했다. 그 후 학생들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수업을 했다. 하지만 역시 학생들 모두를 집중시키기엔 힘들었다.

2주차와 마찬가지로 3주차도 수업을 하며 지나갔다. 학생들에게 결혼한 아내 사진도 보여주고 수학공부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주었다. 그리고 몇몇 반들은 수업을 마치고 마무리 인사까지 했다. 몇몇 학생들이 선물을 주기도 했다. 선물은 받은 나는 어쩔 줄을 몰랐다. 내가 이걸 받을 만큼의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았고 받기에는 너무 염치가 없었던 것 같았다. 너무 기분이 좋고도 이상했다. 감사했다.

4주차가 왔다. 효문중학교 시험이 4주차 수목금이어서 화요일 6교시 이후에 교생 총 평회를 했다. 선생님들께서 수고했다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교생들도 한달 동안 어떤 것을 느꼈는지 이야기 했다. 그리고 수목금 시험감독도 들어가고 교육실습이 마무리 되었다. 목요일에 교생선생님들 다 같이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줄 선물을 사고 포장하고 편지까지 썼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고 시험도 끝났다. 반을 들어가니 선생님께서 작별인사를 준비하셨다. 학생들이 나를 위해 편지도 써주었다. 솔직하게 나는 이정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다고 생각했다. 2학년 수학을 가르쳤고 1학년 6반에게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다. 한 명 한 명 상담은 했지만 반 정도만 하고 모두 다 하지는 못했다. 시험기간이라 작별인사는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신경써주시고 반 학생들도 모두 신경써주었다. 그렇게 작별인사를 하고 교장, 교감선생님들께 인사를 하고 교육실습이 마무리 되었다.

교육실습 기간 동안 느낀 점은 너무나도 많았다. 처음 수업이 너무 많고 학습지도안을 너무 많이 짜서 힘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를 통해 많은 수업을 해서 많이 배우고 갔다. 열심히 수

업을 듣는 학생들은 모두 사교육 등 이미 예습을 해서 교과내용을 다 알고 있었고 수업을 잘 듣지 않은 학생들은 아예 모르고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궁금증을 유발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은 힘들었다.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도 막막할 때도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교사가 되느냐 마느냐의 고민이 아닌 어떻게 아이들을 더 좋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들었다.

학생들을 사랑하기엔 한 달이라는 시간을 짧다는 생각도 했다. 1학년 6반에게는 너무 아쉬웠다. 1학년 6반 담임으로 와서 정작 우리 반을 수업을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아이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한 것이 아쉬웠다. 그렇게 모자랐지만 그런 사람도 사랑해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다.

교생기간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느낀 한 달이었다. 준 것에 비해 많은 사랑을 받고 떠나는 한 달이었던 것 같다.